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이는 그것을

마구 넘겨 버리지만,

현명한 이는 열심히 읽는다.

인생은 단 한 번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상 파울 -

www.kumoh.ac.kr



금오공대 VOL 173

소식

창조적인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특수목적 국립공과대학으로
국가와 인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①
⑤ ②
④ ③

※ 2015 봄캠퍼스 사진공모전 당선작

- ① 「청운대의 고은 자태」 이동구 作 ② 「기운」 조은호 作 ③ 「봄 나들이」 박수진 作
④ 「정춘과 목성」 장수연 作 ⑤ 「책 읽는 금오인」 손창식 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R & BD 특화대학 세계로의 kit

금오공과대학교는 창조적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특수목적 국립공과대학으로
국가와 인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CONTENTS + 173

04 Focus 개교 35주년 기념
함께 만든 35년, 100년을 향한 비상

06 Issue
대학 내 갤러리 오픈, 진화하는 캠퍼스
산학기술창조관 건립, 국비 125억6천만원 확보
LINC사업,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선정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학군단, 전국 최우수 학군단 선정
평생교육원, 2015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선정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영덕연수원 기공식 개최

창업교육센터, 선주중학교 업무협약
사회공헌활동으로 소외계층에 온정

16 Interview 동문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일

18 People 동아리탐방
창업동아리 '투아이브팀' 국제발명품전시회 3개 부문 입상
오토매니아, 국제 대학생 자동차 대회 장려상

21 People 학생
학생우수논문발표상 수상
발명의 날 산자부 장관 표창

22 People 교수진
이원태교수, 제25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박철민교수, 사이언티픽 리포트 편집위원 선임
주백석교수, 논문 우수상 수상
이진덕 교수, 한국콘텐츠학회 학술상 수상
하영철 교수, (사)한국풍공학회 회장 선출

24 kit News
재학생 후배들을 응원합니다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실시
금오공대 컨설팅대학원, 텔컴대학과 교류 협력 강화
구미기업성장지원센터와 MOU 체결

(사)중소기업융합물산연합회 MOU 체결
한국도로공사와 MOU체결
개교 35주년 기념, 김황식 前 국무총리 특강 개최
정승조 前 합참의장 초청 안보 특강
미래는 인문학과 예술, 기술의 융합시대
책, 음악과 만나다
한국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배웠어요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2015 창업캠프 개최
융합형 창조 인재 양성 무한상상공간 오픈
ACE포럼 우수사례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 앞장
가족회사 2개 기업, 경북 100대 프라이트기업 선정
우리 대학 총학생회, 네팔지진 피해 구호 동참
대학 재정위원회 출범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과학영재교육원, 2015 사이언스 투어 실시
2015 대학 체험캠프 호응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MOU체결
국방 용 · 복합기술 혁신 선도

36 kit Love 발전기금

37 kit Love 약정서

39 kit Love 기탁하신 분



함께 만든 35년, 100년을 향한 비상



우리 대학은 5월 21일, 본관 대강당에서 개교 제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부 본식과 2부 교훈식 제막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남유진 구미시장,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전강진 김천지청장과 역대 총장 및 동문 등 각계 내·외빈이 자리해 개교 35주년을 축하했다.

1부 기념식에는 대통령 표창에 이어 교육부장관 표창, 학술상 및 공로상 수여가 있었으며, 개교 35주년을 맞아 선정한 '자랑스러운 금오인상' 수여식이 함께 이뤄졌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전차량과 교훈식 기증식이 이루어져 개교 35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2부에서는 금오공대 총동창회,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석·박사원우회 등 뜻있는 동문들이 힘을 모아 모교에 기증한 '교훈식 제막식'이 거행됐다. 교훈식에는 금오공대의 설립 이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정주의(정성·정밀·정직)' 정신과 함께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친필 휘호인 '진리·창조·정직'을 함께 새겼다. '진리·창조·정직'은 금오공대가 1990년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개정한 교훈이다.

'함께 만든 35년, 100년을 향한 비상'을 개교 35주년 슬로건으로 정한 금오공대는 이번 개교 35주년 기념식과 교훈식 제막식을 통해 제2의 도약을 다짐할 예정이다.

김영식 총장은 "함께 만든 35년의 금오공대가 100년을 향해 비상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중심 대학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학이념과 혼이 살아있는 세계 속의 명문 공과대학교로 준비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축사에서 "금오공대는 전문 공학인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건인차 역할을 담당했다"며 "공학 중심의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외국을 방문하면 '구미시에 어떤 대학이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미국을 대표하는 공대가 MIT라면 한국에는 kitt가 있다"며 금오공대는 구미시의 자랑이라고 축하인사를 했다.



개교 35주년 기념식 개최

“대통령 휘호 교훈식 제막식 거행,
“뜻있는 동문들의 모교사랑으로 기증”





대학 내 ‘갤러리’ 오픈, 진화하는 캠퍼스 유희(遊休) 공간 활용 ‘kit 갤러리아’ 설치

지난해 문을 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혁신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립대학이 대학 내에 유희 공간을 전시관과 북 스토어, 미니 소공연장 등이 모인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대학은 구성원의 정서함양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 금오공대 ‘kit 갤러리아’ 개관식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착공하여 올해 2월 13일 준공된 ‘kit 갤러리아’는 연면적 410㎡에 총공사비 약 5억 6천만 원이 투입됐다. 내부공간으로 전시실, 북스토어, 휴게실 등을 갖추었으며 외부공간으로는 다목적 잔디 광장(180㎡)과 야외공연장이 조성됐다. kit 갤러리아는

이미 지난해 3월 문을 연 kit 북카페와 더불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kit 갤러리아를 기획 및 설계한 안동준 금오공대 건축학부 교수는 “자유로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설계를 했다”며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대학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금오공대 총장은 “올해 개교 35주년을 맞아

대학 캠퍼스를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며 “학업을 위한 공간 위에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캠퍼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t 갤러리아
운영시간 안내

정기휴관
(공휴일, 월요일)
을 제외하고
10시~18시까지
운영된다.

금오공대는 그동안 야외공연장, 본관 대강당 등에서 구미아시아 연극제, 클래식 음악 공연, 국악 한마당 공연, 행복 콘서트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회와 연극제를 개최하였다. 또한 연말이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해왔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kit 갤러리아는 대학 구성원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또 다른 문화공간으로 자리 할 전망이다.

문의
☎054-478-7047



산학기술창조관 건립, 국비 125억6천만원 확보

국비 125억6천만원 확보

최근 정부와 기업이 미래 신 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창조경제 기반의 산학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대학이 산업단지의 분산된 산학협력 시설을 집적화하기 위한 국책사업 유치에 성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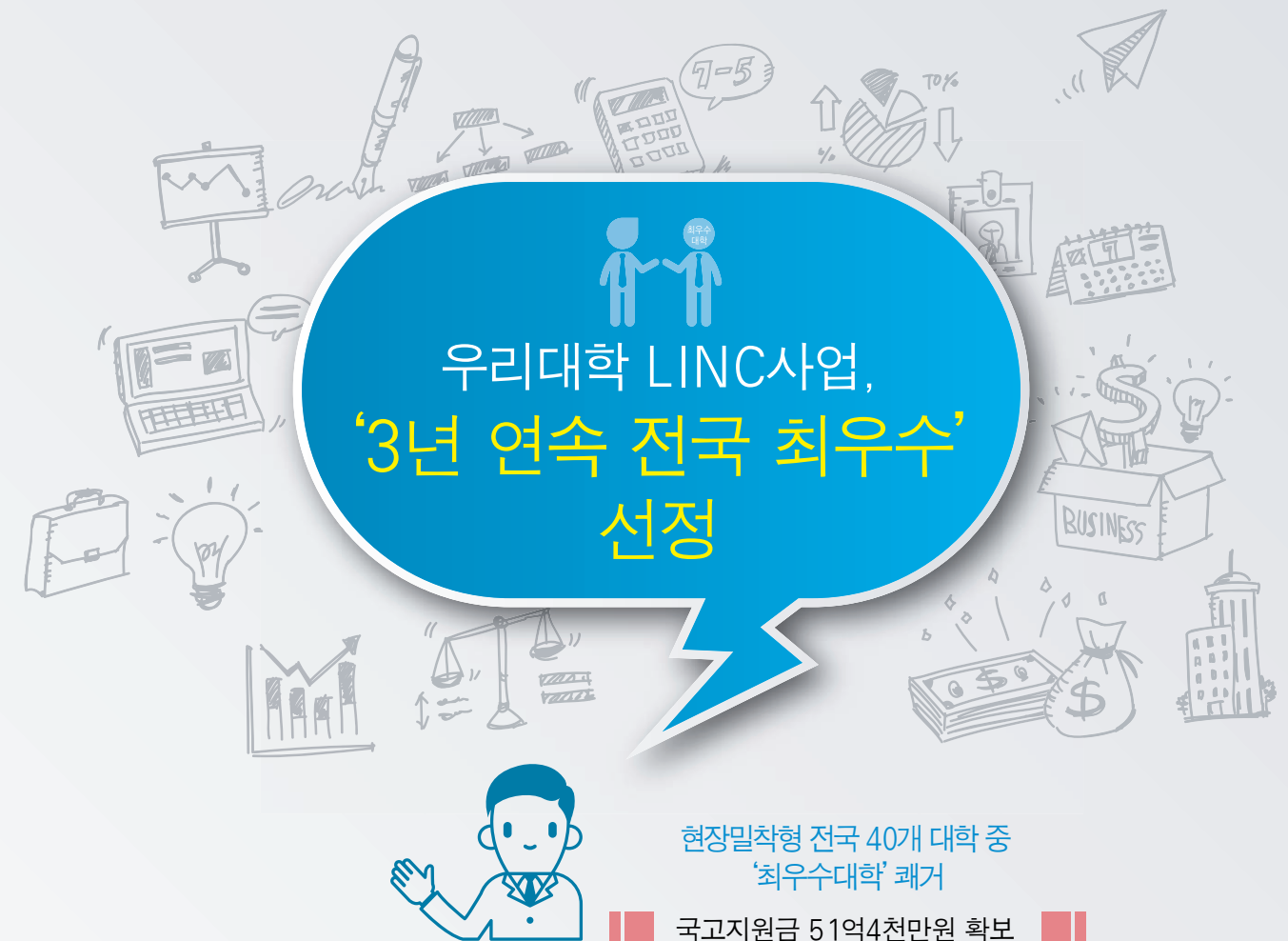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 허브 구축을 위한 ‘산학기술창조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125억6천만원을 확보했다. 대학은 구미산업단지의 분산된 산학협력시설 집적화를 통해 산학연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을 할 이번 사업에 대응 자금 31억4천만원을 포함해 총 1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학기술창조관은 대학 자체 대응자금 확보와 건축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산학기술창조관은 차세대 선진 융합 기술의 발굴 및 육성, 기술 및 인적교류의 장으로 구미지역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지역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지원체계 구축, 기술 이전·사업화 등 윈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대학산학협력단을 비롯해 기업 부설 연구소, 국책사업단, 홍보전시관, 학생 창업동아리 등이 들어서 윈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산학공동 신기술 창조공간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김영식 총장은 “대학교육은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연구·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선진융합기술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그동안 창조경제시대 구미산업단지의 연구 및 비즈니스 인프라 및 지역 전략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부족으로 신기술창조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산학기술창조관 건립을 통해 지역 기업 간의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단장 채석)이 교육부의 3차년도 LINC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4차년도(2015년) 사업비 51.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2013년 1차년도 연차평가와 2014년 단계평가, 2015년 3차년도 연차평가 모두 최우수로 선정되며 3년 연속 LINC사업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 특히 금오공대는 현장밀착형 40개 대학 중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51.4억 원의 국고지원금과 구미시 및 경상북도 보조금 등을 포함해 총 57억 원을 가족회사 지원과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활용하게 된다.

우리 대학은 LINC사업 출범 이후 학내 제도개선을 통해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체제를 개편해 왔다. 특히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탕으로 평가 핵심지표인 학생 취업률, 가족회사 수, 공동연구

장비 수익, 기술이전 실적 등을 대폭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생 창업 및 현장 실습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학생지원 사업을 통해 2014 대한민국 세계 여성발명대회 금상 수상, 제8회 중국 국제 발명전시회 동상 수상 등 국내·외 각종 경진대회에서도 다양한 입상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작품을 상품화하여 기업으로 기술이전 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

채석 LINC 사업단장은 “4차년도부터는 1, 2단계 성과를 확산·정착시켜, 능동적인 쌍방향 협력 허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산업과 밀착된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공동체 활성화로 실질적 산학협력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55개 대학의 지난 1년간 사업실적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우리 대학,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관리 시설 대상 연구 활동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 조사)'으로 지정되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우리 대학은 이번 지정을 바탕으로 토양 정밀조사, 토양오염 정기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오염물질 분석 등의 업무를 앞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토양조사·연구 분야의 전문기술인력과 최첨단 분석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금오공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전국공단, 군부대 주둔지, 폐기물 매립지, 주유소,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등을 대상으로 각종 분석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환경부의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및 분석기기 검정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을 주관하는 광호상 산학협력단장은 “신뢰성 높은 분석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관련 연구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대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다.



학군단, 전국 최우수 학군단 선정

전국 115개 학군단 가운데 최우수, 2001년 이후 14년만의 쾌거

우리 대학 학군단이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주관하는 우수학군단 선발 평가에서 전국 115개 학군단 가운데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됐다.

학군단은 2014년 7월에서 올해 6월까지의 평가 기간 동안 교육훈련·정훈공보·인사·정보작전 등의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에 최우수 명문 학군단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2001년 최우수 평가 이후 14년 만의 쾌거다.

우리 대학 학군단은 '군 현대화를 위한 고급기술장교 육성'을 위해 1982년 대구대학교 분단으로 창설됐으며, 1992년 금오공대(152) 학군단으로 승격되어 올해 2월까지 1,744명의 학군장교를 배출했다. 특히 지난해 '2014 국방부 대학능력평가 우수'를 획득한 데 이어 1년 만에 2015년 전국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여 국방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서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해 1월 우리 대학 학군단으로 새로 부임한 권호산 학군단장은 “명확한 꿈과 목표를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정예 초급장교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인화 교육을 통해 강인한 체력, 정신력, 장교의 품성을 겸비한 모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생교육원, '2015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선정

“취업·창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직업능력 향상, 소외계층 지원 교육 등 실시

우리 대학이 '2015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의 비학위과정(유형 I)에 선정돼 사업비 9천만 원을 확보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성인학습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대학이 평생교육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고졸 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학습자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받도록 학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생교육원은 오는 9월부터 비학위과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창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과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직업능력교육, 지역유적과 지역인물의 조명을 통해 중장년층 및 은퇴자의 재능기부 활동과 직업탐색을 겸한 시민참여 교육, 지역의 소외된 이웃인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 정서함양을 위한 소외계층지원 교육 등이다.

신호근 평생교육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를 비롯해 근로자, 청년창업 희망자, 소외계층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학사, 석·박사 등 총 506명 졸업



김영식 총장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 에 최선 다짐

우리대학은 8월 21일 오후 2시, 본관 대강당에서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제33회를 맞이한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학생, 학부모 등 8백여 명이 참석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420명, 석사 74명, 박사 12명 등 총 506명이 학위를 받았다. 특히 금오공대의 kit인재인증제도(참·든·난·큰사람 인증) 가운데 신소재공학부 김영섭 학생이 “참사람, 큰사람” 분야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밖에 기계공학과 정재성 학생 등 8명에게는 졸업포상이, 전자공학부 학생회장을 역임한 조광명 학생 등 5명에게는 재학 중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장 특별상이 수여됐다.

김영식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졸업생 한명 한명이 무한한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오공대는 대한민국을 이끌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선 서임교 총동창회장과 권영희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장, 지도 교수 등이 참여한 ‘희망의 메시지, 릴레이 인터뷰’가 이어져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영덕연수원 기공식 개최

지상 3층 규모, 내년 5월말 준공 예정,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될 것으로 기대

우리대학이 학교 구성원들의 복지 증대 및 심신 수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신축하는 영덕연수원 기공식을 8월 24일 개최했다.

이번 기공식에는 금오공대 김영식 총장과 이회진 영덕군수, 금오공대 직원 및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금오공대 연수원은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에 연면적 66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 3층 규모의 연수원은 세부시설로 숙소 6실, 회의실, 관리실, 샤워실 등을 갖추게 된다. 지난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말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다.

김영식 총장은 “이번 영덕연수원 건립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증대 및 영덕군과의 관·학 협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사고 없이 영덕연수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덕연수원이 건립되는 대진리 일대는 항일운동을 펼친 벽산 김도현 선생이 순국한 유적지로 도해단으로 불리는 국가보훈처지정 현충시설이 인접해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금오공대는 이번 영덕 연수원 건립을 위해 올 초 영덕군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맺고 건립을 추진해 왔다.





선주중학교 업무협약

학생 동아리 활동 및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운영, 대학 재능기부 참여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소장 최성대)와 선주중학교(교장 전창석)는 6월 29일 본관 7층 소회의실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인재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협약은 금오공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지역 사회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학생 동아리 활동 및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환, 청소년 진로 지도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지원, 시설 견학 및 교육프로그램 상호 공유,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공헌활동으로 소외계층에 온정

지역 여성가장 자립지원

우리 대학은 6월 23일, 김영식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와 총학생회 학생 및 교직원 30여명이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가장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사회적 기업에 전하는 도서 기증,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등이 펼쳐졌다.

김영식 총장은 “나눔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이웃을 위해 함께 나누는 유종의 미를 갖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진주호 학생복지위원장(컴퓨터공학과 3년)도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총장님과 학우들이 함께 뜻깊은 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사회적 기업에 도서기증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비롯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네팔 지진피해 성금 전달 등 지역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금오공대
총동창회장
서 임 교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일”

지역 유일의 국립대학인 ‘금오공대’ 사랑해주길…
화합과 소통으로 모교와 지역사회 기여하도록 노력

최근 박근혜 정부가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신 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유일의 특성화공과대학으로 전문 공학인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금오공과대학교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한 서임교(사진) 금오공대 총동창회장을 만났다.

동창회장으로 취임 한지 2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동창회장을 맡으면서 ‘화합과 소통을 통해 모교 발전에 초석이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경향 각처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과 소통하며 대학이 당면한 각종 현안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적지 않은 어려움 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찬성과 반대가 중첩하듯이 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해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다양성이 공존하는 아름다움 사회겠죠. 각자 바쁜 생업을 뒤로 하고 동창회와 모교를 위해 함께 뛰어 준 동문들 덕분에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금오공대가 올해로 개교 35주년을 맞았습니다. 동창회에서 모교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금오공과대학교는 올해 개교 35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일로, 조상들께서는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일컬었습니다. 금오공대는 ‘산학중심의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많은 국책사업 유치와 우수한 취업률은 지역 대학의 최고를 자랑합니다. 실천 중심의 교육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이 것이 금오공대가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저희 금오공과대학교 총동창회는 오는 10월 개교 35주년을 맞아 금오인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오인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동창회 명부를 새로 발간하고 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후배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금오공대 동창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창회’를 기치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지난해 우리대학은 어려운 현안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사회 속에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 봉사 활동과 후원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문화행사 후원, 유관 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교와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모교와 유관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빠른 기간 내에 동창회 사무국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학과(학부) 동문회 활성화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력을 바탕으로 모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기업인이면서 오랜 기간 지역경제인 단체의 대표로 침체된 지역 산업 발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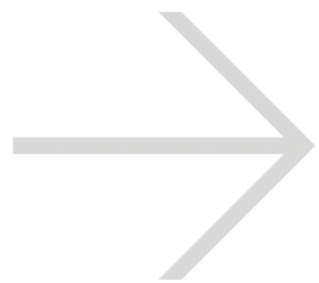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해 지역 기업인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로 30여년 동안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드나들며 공학인으로서 자긍심을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왔지만, 저와 같은 공학도들이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하 협의체 대표와 금오공대 중소기업대표자 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공학인이 우대 받고 기업인이 존중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미력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오공대를 사랑하는 지역민과 동문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 상주대학교(현재 경북대 상주캠퍼스)가 통합될 당시, 상주시민들이 결사반대 했다고 합니다. 국립대학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그 만큼 높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대학은 국내 유일의 국립 공과대학입니다. 1970년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학중심의 특성화 대학인 ‘금오공대’를 지역민 여러분께서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오공대 동문들께서도 동문 모두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해 모교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동아리 ‘투아이브팀’ 국제발명품전시회 3개 부문 입상



드럼세탁기 청소 시스템 등 아이디어 제품 호평 LINC사업단,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성과



창업동아리 ‘투아이브팀’은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3개 부문에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창업동아리 ‘투아이브팀(지도교수 김영태)’은 본교 LINC사업단(단장 채석)에서 시행하는 ‘창업동아리, Mock-Up’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코안다 효과를 이용한 드럼세탁기 내부 청소 시스템’을 출품해 은상을 차지했다. 또한, ‘포토 액자 용지’를 출품해 본선대회 은상과 함께 러시아 발명협회 특별상을 수상했다.

‘코안다 효과를 이용한 드럼세탁기 내부 청소 시스템’은 코안다 효과*를 통해 세탁 후에 남아있는 물기와 세제, 섬유 찌꺼기를 제거하는 신기술이다. 또 ‘포토 액자 용지’는 흔히 보급되어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사진을 인쇄한 후, 곧바로 액자로 만들 수 있어 사진의 인화, 보관, 전시 과정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다.

이상욱 학생은 “창업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함께 노력한 팀원들과 특허출원 및 시제품 제작에 도움을 준 대학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욱(기계시스템공학과 3년), 김정준(전자공학부 4년), 성은혜(고분자공학과 3년), 조은서(경영학과 2년)로 구성된 ‘투아이브팀’은 최근 광주창조혁신센터에서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그룹에서 후원하는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H-Startup Idea Competition)’에서 권역별(경북권) 우수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코안다 효과- 벽면이나 천장면에 접근하여 분출된 기류가 그 면에 빨려서 부착하여 흐르는 현상

자작차동아리
‘오토매니아’

국제 대학생 자동차 대회 ‘장려상’

‘2015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 호평
동아리 창단 20주년, 지역 대학 위상 드높여

우리 대학 자동차 동아리 오토매니아(팀장 김장수 외 8명)가 최근 경기도 화성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열린 ‘2015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인도, 태국 등 해외 참가팀을 포함해 총 67개 팀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전기 자동차의 주행 및 가속 성능, 창작 기술 등 학생들의 창의력 및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 팀장을 맡은 김장수 학생(기계공학과 3년)은 “팀원들과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적용해 보기 위해 대회 출전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내구성과 경량화에 바탕을 둔 트레일링 암(trailing arm) 방식으로 차를 설계한 결과, 작년 출품작 대비 40kg정도 감량한 점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회에 함께 참여한 김기호 학생은 “기계공학과 김세웅 지도교수님의 조언과 대학 LINC사업단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며 “오는 8월 자동차공학회가 주최하는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에 참가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는 오토매니아(지도교수 김세웅)는 2002년 전국 저연비 자동차 경주대회 종합 우승, 2008년 KSAE Mini-Baja 신기술우수상 1등, 디자인 2등, 2014년 KSAE Mini-Baja 장려상 등 대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응용화학전공
이재열 대학원생

학생우수논문발표상 수상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이 2015년 4월 15일 ~ 17일 여수엑스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회에서 우리대학 화학소재융합부 응용화학전공 이재열 대학원생(지도교수 지광환)이 연구 결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생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한국생물공학회 학술발표대회는 1,2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생물공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대회이다. 우수논문발표상의 제목은 ‘The Biocompatibility of Gold Nanoparticle by Photothermal Effect and the Use of Thermo-Cosmetics’로 금 나노입자의 표면플라즈몬공명에 의해 발생한 열을 이용한 온열화장품 개발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는 응용화학전공 장의순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

도전과 혁신으로 뚝뚝 뭉친 **kumoh** **人**, **미래**를 여는 **희망**입니다.

‘발명의 날’ 산자부 장관 표창

기계시스템공학과 박현규(4년) 학생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발명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발명의 날을 기념하여 같은 날 열린 ‘특허 사업화 해커톤 대회’ 시상식에서도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박현규 학생은 학내 발명·창업동아리 ‘거북선신회’에서 활동하며 LINC사업단의 창업교육센터에서 지원하는 특강, 멘토링,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박현규 학생은 ‘2014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창의력 교육 컨설팅 기업인 (주)다락방(대표 하재상) 일원으로 지역사회 배움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했다.

박현규 학생은 “지역사회 과학(발명)문화 촉진과 더불어 창의적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오공대 기계시스템공학과 이상욱(3년) 학생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표창을 수상해 창의인재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앞서 우리 대학은 지난 2013년 개최된 제 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특허청장(하재상, 전자공학부 졸업) 표창, 한국발명진흥회(최현진, 소재디자인공학과 졸업) 표창을 배출해낸 바 있다.

특허청에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발명의 날은 올해 50회를 맞이하여 ‘발명 50년, 창조 한국을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계시스템공학과
박현규 학생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키우는 힘, **파워** 교수진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도전정신을 심어주며 이끌어주는 행복교육! 당신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화학소재융합학부 이원태 교수 '제25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EI-GC/MS/MS를 이용한 니트로사민류의 수질분석' 관련 화학소재융합학부 이원태 교수(환경공학전공)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제25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국내 과학기술자를 선정하여 연구 의욕과 사기를 진작 시키고, 과학기술 수준 향상 및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 관련 학술단체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논문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므로 국내 최고 권위 논문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원태 교수는 대한환경공학회지에 게재된 'EI-GC/MS/MS를 이용한 니트로사민류의 수질분석' 논문으로 공학부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수돗물의 소독 과정에서 발생 가능

한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를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여 해당 물질의 생성 및 처리와 관련된 연구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함께 연구한 학생들과 공동연구자들의 도움으로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 교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2010~2011)을 거쳤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2011), 대한상하수도학회 논문발표상(2011), 대한환경공학회 특별상(2014)등을 수상하는 등 국내 환경공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7월 2일 열린 '2015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거행됐다.



신소재공학부 박철민 교수 '사이언티픽 리포트' 편집위원 선임

해당 분야 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역할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해 온 신소재공학부 박철민(39세) 교수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의 편집위원에 선임됐다.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의 자매지로 자연과학 분야 전체를 다루는 온라인 오픈 액세스(online open access) 저널이다.

박철민 교수는 2015년 6월부터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화학 및 에

너지 분야의 편집위원(Editorial Board)으로 활동하며, 해당 분야의 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철민 교수가 맡고 있는 전지신소재연구팀은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해왔다. 최근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갖는 차세대 2차 전지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는 올해 1월 사이언티픽 리포트 온라인판에 게재된 바 있다.



기계시스템공학과 주백석 교수 '논문 우수상' 수상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학회지에 선정

우리 대학 기계시스템공학과 주백석 교수와 전자공학부 성영희 교수가 지난 4월 15일,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지 24권 2호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으로 선정

되어 '논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논문은 "전방향 이동로봇 위치제어 알고리즘과 실험적 검증"으로 2015년 4월에 게재됐다.



사회인프라공학과 이진덕 교수, 한국콘텐츠학회 학술상 수상

토목환경공학부 이진덕 교수는 2015년 5월 1~2일 부산 신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5 한국콘텐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에서 "수치항공사진으로부터 소형건물의 지붕 경계 추출" 등 최근 1년간 학회논문지에 우수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여 콘텐츠기술 및 학문발전에 기여한 학술적 공헌으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이진덕 교수는 현재 학회 상임이사과 GIS & LBS 콘텐츠 분과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토목환경공학부
이진덕 교수

도전정신을 심어주며 이끌어주는 **kumoh** 人
당신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건축학부 하영철 교수, (사)한국풍공학회 회장 선출

건축학부 하영철 교수가 지난 5월 말 개최된 제18회 한국풍공학회 총회에서 제10대 (사)한국풍공학회 회장으로 선출돼 6월 1일부터 오는 2017년 5월 말까지 2년간 학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풍공학 전공으로 우리나라 풍하중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하영철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 업적 및 활동사항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에는 한국 최초로 국제풍공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Wind Engineering; IAWE) 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IAWE 이사로 활동하는 하영철 교수는 2018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산풍공학 학술대회CWE(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Wind Engineering) 의장도 맡을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의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영철 교수가 연구하는 풍공학(Wind Engineering)은 초고층 건물의 설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어 앞으로 그의 연구가 학계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공학부
하영철 교수



재학생 후배들을 응원합니다

토목공학과 취업 특강
및 단체 영화관람

우리 대학 토목공학과 총동문회(회장 이재관)에서는 5월 12일, 구미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2015 토목공학과 재학생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후배들을 위해 꾸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토목공학과 총동문회는 2012, 2013년 금오공대 교정에서 재학생들을 위한 간식제공 행사에 이어 지난

해와 올해에는 극장을 대관해 '재학생 취업특강 및 단체 영화관람' 프로그램으로 개최해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제공과 화합의 장 마련의 방향으로 개선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 토목공학과 총동문회에서는 매년 계속되는 '장학사업'과 함께 오는 10월 17~1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2015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토목인의 날' 행사를 통해 전국 각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목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총동문회의 존재감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실시

마을 환경개선에도
앞장서

우리 대학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에 나서,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은 매년 이 대학 건축학부 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번 봉사활동은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1리 일원의 5가구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했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온 이 활동은 한국농촌건축학회가 주관, 다솜동지 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있으며 금오공대를 비롯해 1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노후 된 주택의 장판 및 도배 교체, 부엌 및 화장실 정비, 지붕 개량, 담장 보수 등을 통해 노후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마을 환경 미화 및 농촌 일손 거들기 등을 통해 마을 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3년 째 매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승준(건축학 전공 5) 학생은 "말끔해진 집을 보고 기뻐하시는 어르신들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 전공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공부도 하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오공대 컨설팅대학원, 텔کم대학과 교류 협력 강화



텔کم대학 지역사회연구소와 MoA 체결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 기여

금오공대 컨설팅대학원은 국제 교류사업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텔کم대학교(TelKom University)를 방문해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금오공대는 지난 2013년 8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통해 텔کم대학교와 학술 협력 및 학생 교류 등을 추진해 왔다. 컨설팅대학원은 이를 기반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분야의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 및 글로벌 리서치의 공동 추진을 위해 이번에 텔کم대학교의 지역사회연구소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김태성 컨설팅대학원장은 “이번 MoA가 양 대학이 가진 ICT 융합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ICT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 반둥시에 위치한 텔کم대학교(Telkom University)는 세계적인 ICT 기업인 텔컴사의 교육재단이 기존의 텔컴 기술연구소, 텔컴 경영연구소, 텔컴 폴리테크닉, 텔컴 아트 앤 디자인 연구소의 4개 기관을 통합하여 2013년 설립했다. 이 대학은 산하에 산업공학부, 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경제경영학부,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학부, 창조산업학부, 응용과학부의 6개의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으며 학생 총원이 20,000명에 달한다.

구미기업성장지원센터와 MOU 체결



(사)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 MOU 체결



컨설팅대학원이 보유한 인프라 공유

컨설팅대학원(원장 김태성)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기업성장지원센터(센터장 김사홍)는 3월 13일, 본관 7층 소회의실에서 ‘상호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산업과 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협약은 지역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정책 발굴을 위한 학술정보 및 연구자료 상호교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공동협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학협력, 취업촉진 위한 상호 협력

우리 대학은 (사)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회장 이종철)와 3월 16일,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에서 체결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학공동 연구과제와 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 취업연계의 현장실습과 인턴 채용 확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각의 역량과 자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상호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MOU체결



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공사의 지식자산 교류 추진

개교 35주년 기념, ‘김황식 前 국무총리 특강’ 개최



컨설팅대학원 주최, ‘성공의 조건, 행복의 비결’

3월 10일,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와 상호 협력시스템 구축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학연관 공동연구개발 및 상호협력, 연구 인력/장비 등 인프라 공동 활용, 학술 및 기술정보 등의 교류, 교육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우리 대학은 대학의 교육 콘텐츠와 인적자산을 포함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도로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산을 무상 기부하기로 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정보의 공유 및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밖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산학협력 아이템 등을 개발하는데도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우리 대학은 4월 8일,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청 ‘성공의 조건, 행복의 비결’이란 주제로 대학 구성원들과 뜻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대학 개교 35주년을 맞아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컨설팅대학원(원장 김태성) 주최로 열렸다. 특강은 글로벌관 시청각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약 300여명의 대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시간 여 동안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에 이르는 공직 기간 동안의 국정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며 ‘성공의 조건을 갖춘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인성과 전문성,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에 전공 및 취업 공부만 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인성을 쌓고, 융·복합 시대에 맞는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을 기르며,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승조 前 합참의장 초청 ‘안보 특강’



올바른 국가관 정립,
안보의식 강조

6월 15일, 우리 대학은 정승조 전 합참의장(육군 대장) 초청, ‘안보특강’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강연은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을 되짚어 보고, 대학 구성원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글로벌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약 200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육군 제1사단장과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제37대 합동참모의장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반도의 현 안보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국민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정 전 의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며 “대북 억제를 위한 한·미·일·중 정보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정치적 장애물이 군사적 증오로 발전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는 인문학과 예술, 기술의 융합시대”



컨설팅대학원,
진중권 교수 초청 특별 세미나

우리 대학 컨설팅대학원(원장 김태성)은 5월 20일, 글로벌관 시청각실에서 진중권 교수(동양대 교양학부)를 초청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술적 상상력의 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별 세미나에서 진중권 교수는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 강의하며 특히, 디지털 시대의 세계와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창조와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진 교수는 “미래는 인문학과 예술, 그리고 기술의 융합이 중요한 요소”라며 “기술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자와 숫자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거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표현되는 시대로 바뀔에 따라 디지털 이미지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인문학과 예술, 기술을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시민 등 300명 이상의 청중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책, 음악과 만나다”



김용택 시인 초청 ‘북 콘서트’

“한국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배웠어요”



해외 자매결연대학 학생 초청,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 부여

기록유산 기반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보급
확산에 기여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이색적인 ‘북 콘서트’가 지난 5월 19일 오후 3시,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김영식) 글로벌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금오공대 도서관(관장 임재권)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전인적 인성 함양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책과 음악이 만나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김용택 시인과 독서 전문가의 대담이 어우러지는 사이사이, 시를 소재로 창작한 음악이 함께 공연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프닝곡의 ‘넬라 판타지아’를 시작으로, 김용택 시인의 저서인 ‘나는 참 늦봄 텃밭’가 노래로 만들어져 테마곡으로 연주되는 등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낭독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금오공대가 해외 자매결연 대학의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부여했다.

매년 하계방학 동안 실시되는 올해 ‘kit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은 총 3개국 4개 대학에서 참여해 8월 16일부터 6박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일본 오사카부립 대학, 필리핀 마푸아공대, 말레이시아 멜라카공대 및 말레이시아공대 학생들이 초청됐으며, 금오공대 국제교류 도우미 학생들을 포함해 총 4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안동 하회마을 및 국학진흥원을 견학하며, 한지 만들기, 하회탈춤 배우기 등의 체험학습을 실시했으며, 종택 탐방 및 종손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한국 전통 인문 정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미 국가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 갤러리관을 시찰하며 한국의 산업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신수용 국제교류교육원장은 “대학에서 해외 자매결연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프로그램은 본교 홍보 및 교환학생 지원과 대학원 진학에 대한 상승 효과와 더불어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국가 학생들과의 언어 및 문화 교류를 통해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2015 창업캠프 개최



개교 35주년 맞아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실천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에서는 7월 21일부터 3일간 선산종합시장에서 ‘2015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창업캠프는 창업의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창업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한 체험활동으로 매년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 개교 3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사업아이템 기획부터 수익창출까지의 실전 창업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특히 이번 창업캠프는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특화할 수 있는 먹거리 개발과 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활력을 불어 넣었다.

한편 우리 대학은 7월 24일,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2015년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에 선정되어 대학생 창업캠프 또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은 중기청이 2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학생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2개 대학과 인근 전통시장이 선정되어, 1곳 당 최대 1.3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융합형 창조 인재 양성 ‘무한상상공간’ 오픈



학생 창의 문화 조성에 기여

소통과 창의 중심의 대학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무한상상공간’이 4월 27일 문을 열었다.

2014년 선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 ICT융합 인재양성사업의 제안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뤄진 ‘무한상상공간’은 교내 글로벌관에(면적 79.2㎡)에 위치해 있다. 실내에는 ‘변화와 개방(Transform & Open)’을 주제로 다양한 학생 창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앞으로 세미나 및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용된다.

사업 설계에 참여한 산업공학부 김선아 교수(디자인공학전공)는 “공간 레이어드 방식을 적용해 필요에 따라 공간 넓이를 자유롭게 조정 가능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주관한 김동성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은 “기존 금오공대에 있는 kit 디자인스튜디오를 벤치마킹하여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진화된 형태의 개념을 무한상상공간 조성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ACE포럼 우수사례



‘통섭형 공학인 양성’
장려상 수상

제8차 학부교육 선도대학
(ACE) 포럼 개최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 앞장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사업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제8차 ACE포럼’이 5월 28일 건양대학교에서 열렸다.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협의회(회장 김영식·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전국 27개 ACE 대학의 총장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영식 ACE 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교양교육의 역할과 학부교육의 질 관리’라는 주제로, 그 동안 ACE 사업을 통해 발굴된 교양교육의 선도 모델 사례와 교육의 질 관리 체계 선도화를 위한 대학(19개교)과 학생 사업 참여 우수사례(12개교 12개 사례)가 발표됐다.

우리 대학은 이번 포럼에서 ‘통섭형 공학인 양성을 위한 교양 교육’이란 제목으로 최근 학부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고 있는 통섭형 인재 양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Person 나누고 더하다’를 슬로건으로 한 사례는 동체 구성을 통해 독서, 봉사 등 인성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용을 소재로 했다. 이번 사례 발표에서 금오공대 이기황 학생(에너지화학공학전공)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리 대학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테크노파크는 7월 17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 입학식을 가졌다.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동성)가 주관한 이번 교육 과정은 우수 마이스터고교로 지정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와 금오공업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 7, 8월 2개월간 운영된다.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소속 교수 및 국내·외 박사과정 연구원이 C & C++(과목명: Fundamentals in C/C++ Programming with English)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기초 IT기술 강좌를 통해 지역 소재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고급 IT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영어 병행 수업으로 전공분야 더불어 글로벌 어학능력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12월부터 경북 지역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가족회사 2개 기업,



‘경북 100대 프라이드 기업’ 선정

LINC사업단,
창업진흥센터 입체적 지원 성과

우리 대학 가족회사가 경북지역 100대 프라이드 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우리 대학 LINC사업단(단장 채석)의 창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창업진흥센터(소장 김성범)의 입체적 지원을 바탕으로 ㈜카보랩(대표 김우석)과 ㈜선테크(대표 한병삼)가 6월 19일, 경북을 대표하는 ‘100대 프라이드 기업’에 선정됐다.

경북테크노파크(원장 이재훈)에서 주최하는 ‘경북 100대 프라이드 기업’은 경북에 소재한 디지털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모바일융합 등 5대 주력 산업 분야의 유망한 중소·중견 기업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 성장률, 수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경영, 재무, 관리, 영업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 기업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12년 7월, 우리 대학 창업진흥센터에 ㈜카보랩은 ‘방열 코팅 조성물과 이를 코팅시킨 방열판 및 제조방법’을 노재승(신소재공학부) 교수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LAB 창업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고효율 온수기 열교환기에 장착하는 고성능 내화 단열재 개발을 완료했으며, ‘산업소재 및 복합재료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창업 성장기술 개발사업,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6월, 창업진흥센터에 입주한 ㈜선테크는 사물인터넷(IoT) 장비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선모듈 및 전자제어 컨트롤러 기술이 적용된 IoT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IoT의 핵심기술인 무선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제품화하여 부품·소재전문 기업 인증을 받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다. 양 기업은 창업 초기의 어려움 여건에서도 LINC사업단과 창업진흥센터의 기술지도 및 컨설팅, 기술개발 사업 등의 입체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창업기업 ICT개발기술 해외현지화 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회장 황정민)는 5월 18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학축제 기간에 ‘네팔 지진 긴급 구호지원비’ 모금 활동을 가졌다.

금오공대 32대 ‘동행’ 총학생회가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 대구·경북 지역본부(본부장 김희연)의 협조를 얻어 이뤄진 이번 모금 활동은 소모적인 대학 축제를 지양하고 건전한 캠퍼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6월 4일 학생회관에서 이뤄진 성금 전달식에서 황정민 총학생회장은 “지진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성금 모금을 시작하게 됐다. 금오공대 학생들의 정성이 네팔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 ‘네팔지진 피해 구호’ 동참



대학 축제기간 동안 ‘성금 모금’

대학 재정위원회 출범



대학 예산 및 중장기재정 투자 계획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우리 대학은 7월 27일, 대학회계 재정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15명의 대학 재정위원을 위촉했다.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학생과장, 교수회 부회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6명과 교원 3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창회 1명,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일반직 위원 9명의 재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27일, 본관 대강당에서 임명 및 위촉식을 가졌다.

우리 대학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 대표 간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고, 7월 20일 제2차 교무회의에서 그 안이 의결되어 대학회계 재정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15.3.13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국립대학에 설치되는 학교 경영 관련 심의·의결 기구다. 교수 및 학생, 직원과 외부 위원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구성원 간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에 구성된 재정위원회는 대학의 예산 및 중·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 교육·연구비 지급,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 등 학교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영식 우리 대학 총장은 “대학회계 재정위원회가 구성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랜 논의 끝에 구성된 만큼 학교를 위한 정확한 판단과 해안으로 대학이 높이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노진 교수회장은 “어렵게 출범한 재정위원회가 대학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재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한 교수회와 직원협의회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학생들, 직접 만든 카네이션으로 감사의 마음 전달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대학은 5월 15일, 제34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내 마음의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내 마음의 카네이션 만들기」행사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금오공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품위 있는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생활협동조합(이사장 방대석)은 500개의 카네이션 제작 재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어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과학영재교육원, ‘2015 사이언스 투어’ 실시



초·중등 159명 참가 높은 호응

우리 대학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유원석)은 7월 29일, 지역 초·중등 학생들의 과학적 기본 소양과 진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2015 사이언스 투어’를 실시했다.

하계방학마다 실시하고 있는 이번 투어에는 초·중등 과정 교육원생 159명이 참가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학생들은 오전에 대학 교내에서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실험으로 구성된 사이언스 매직쇼를 관람하며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탐구했다. 또한 오후에는 국립대구과 학관을 방문하여 첨단 과학기구 및 장치를 이용한 체험활동을 통해 과학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3D 프린팅 및 로봇 프로그램 제작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접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과학영재교육원은 수학·과학 분야에서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창의적 고급 두뇌를 양성하고자 구미시 지원을 바탕으로 2010년 개원했으며, 현재까지 240여명의 학생들이 수료했다.

2015 대학 체험캠프 ‘호응’



대구지검 김천지청 공동 주최,
경북청소년진흥원 주관

청소년에게 대학 체험 활동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한 ‘2015대학 체험 캠프’가 7월 23일부터 2일간 우리 대학과 구미 도리사에서 열렸다.

우리 대학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양 기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 봉사동아리 소속 학생 20명과 지역 청소년 10명이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이 주관하고 우리 대학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천지청 소년담당 검사와 전문지도 강사 3명도 함께 참가했다.

지난 1월 동계 캠프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청소년의 장점 개발 및 자존감 고양을 목표로 자기소개 및 멘토와의 만남, 웃음치료, 직업적성 검사, 도리사 템플스테이 등 체험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뤄졌다. 특히 템플스테이는 청소년들이 자아 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또한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위원들과 대화시간을 별도로 갖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진로 상담을 함께 가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우리 대학은 청소년 선도캠프와 함께 무료급식 봉사, 사랑의 도서 나눔, 여성가장 자립지원 등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MOU체결



경북지역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 추진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지역 대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힘을 합쳤다.

3월 6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진한)와 경북지역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책사업 공동 참여 및 상호협력, 연구 인력, 장비 등 인프라의 공동 활용, 기술 및 학술정보 교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기관 간의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식 총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내 혁신기관과 대학이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조경제 사업을 발굴·기획하며,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국방 용·복합기술’ 혁신 선도



김천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약체결

국방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융복합 기술의 국산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이 5월 7일, 김천시청에서 열렸다.

우리 대학과 김천시(시장 박보생),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이원복, KTL: Korea Testing Laboratory) 등 3개 기관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은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의 국방·군수 ICT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안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국방·군수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 ‘ICT융합 특성화 연구센터’와 연계된 국책과제와 기업 및 기관시설 유치에 대한 상호지원, 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과 품질인증 획득 지원, 산학연 첨단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국방전문 특화 대학원 및 컨설팅 대학원 유치 및 설립 등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학술 연구 기금	학술 연구 지원, 국제 학술 교류 지원, 교수 해외 파견 지원, 공동 연구지원, 저명 교수 초청 지원,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실현
도 서 기 금	대학 도서관의 국내외 학술 도서의 구입과 각종 문헌의 확보 및 도서 관리의 전산화를 기하여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장 학 기 금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
외국인장학기금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연구기자재기금	첨단 과학과 기초 과학의 연구 및 교수에 필수적인 최신 연구 기자재를 확충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
시설 확충 기금	교육 및 연구 시설과 후생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안락한 교육 여건을 조성
대학 문화 기금	학생들의 대학 문화 활동에 편의를 도모
대 학 예 일 임	금오공대 우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금오공대에 위임
기 타	기부자가 희망하는 경비 등

방 문 납 부 직접 금오공대 기획협력처(본관 601호)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무 통 장 입 금 농협은행 785-01-037878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또는 대구은행 504-10-103390-1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로 입금 하시고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CMS 자동이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자동이체 가능

※ 현금 이외의 현물(주식, 부동산, 소장품 등) 기부 시 기획협력처(054-478-7080)으로 연락주시면 기부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 인 기 부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의 100%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법 인 기 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단, 2009년부터는 연간소득금액의 50%)

상속재산기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



kit 금오공과대학교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약 장 자	기부자명 □ 익명희망	주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물 수령주소	(우 -)			연 락 처	자택 H/P	
	동문	□ 학부(과) _	□ 대학원 _	□ 최경과정 (제 기)			
	기업체	회사명 _		대표자 _			
	학부모	학생성명 _		학부(과) _			
교직원							
참 여 방 법	약정금액	금	원 (W)	추 천	□ 교수	□ 직원	□ 기타
	참여방법	□ 직접납부 농협은행 785-01-037878 대구은행 504-10-103390-1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 CMS 자동이체 □ 급여이체 (교직원에 한함, 동의서 작성)					
		예금주	(인/서명)		거래 은행		
		계좌번호			이체일	1일	15일
납입기간	금	원씩(회) (년 월 ~ 년 월까지)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동의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위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① 서명						
기부금종류	□ 현금	□ 유가증권	□ 부동산	□ 기타			
기부금용도	□ 대학사랑기금 □ 장학기금 □ 지정장학기금(학과명:) □ 대학문화기금 □ 시설확충기금 □ 도서기금 □ 학술연구기금 □ 연구기자재확충기금 □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동동의서	본인은 (제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하고 기부함에 있어 기부금 입금 처리 및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를 위해 성명, 주인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 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부금 입금 처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성명, 주인등록번호, 근무처, 전화번호, 이메일, 기부내역)등 기부자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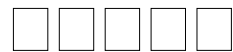
④ 서명

자세한 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발전후원회(T.054-478-7080, F.054-478-708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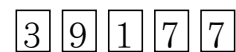
주소



받는 사람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발전기금 담당자 귀중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 별	모 금 액
2015년 1월 ~ 7월	174,460천원

기탁하신 분

(2015. 01. 01. ~ 2015. 07. 31.)

1천만원 이상

농협은행 동구미지점	대표 배화찬
(주)비에이치씨유통	총장 김영식
금오공과대학교	대표 정 인
(주)그린텍시스템	

5백만원 이상

(사)대구경북성공 CEO포럼	총동창회 일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동문(산업대학원 '07)
정장영	회장 권영희
최경총동창회	대표 황중국
(주)프로템	

1백만원 이상

금상	대표 원종욱
두산연강재단	
최은오	동문(전자전산 '82)
티엔에스(주)	대표 이명호, 김봉석
지텍(주)	대표 권영희
에스엘테크	대표 서임교
(주)팔팔운수	대표 조동현
(주)진성전자	대표 서길호
김정섭	동문(산업공학과 '13)
(주)예코숨	대표 석주운
곽윤근	교원(건축학부)
김수경	학부모(응용화학부 '14 홍다윗)
KIT교직원아파트(송정동)	입주자일동
(주)피엔티	대표 김준섭
금오산한우마을	대표 김현숙
수성 F.L	대표 김경미
김상호	교원(산업공학과)
김영	교원(전자공학부)
(주)영진하이텍	대표 김영호
드림아이엔씨	대표 김중삼
도재홍	산학협력중점교수
금오산성숯불갈비	대표 민석주
대운엔지니어링(주)	대표 박봉철
박영배	산학협력중점교수
박창용	교원(기계시스템공학과)
이글스크린	대표 류연주
이이섭	교원(컴퓨터공학과)
이현식	
임덕식	직원(생활관)

1백만원 이상

최낙렬	교원(교양교직과정부)
(주)디에이비피	대표 김경민
신동아인쇄기획	대표 김진순

50만원 이상

김학성	교원(전자공학부)
서영식	직원(사무국)
최명익	동문(고분자공학과 '90)
김옥란	과장(교무처)
데이터콤	대표 강전학
오순문	전 사무국장
옥류정	대표 임춘미
최용호	동문(기계공학과 '81)

50만원 미만

권용민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1)
김민수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0)
김웅원	직원(응용수학과)
도경원	동문(소프트웨어공학전공 '05)
문성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1)
이상욱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3)
이성훈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3)
이은택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2)
한승원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1)
김진솔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09)
신광섭	동문(기전공학과 '09)
홍석준	동문(기전공학과 '09)
황민재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09)
강종서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2)
고대형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1)
김민주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0)
김윤배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2)
민선홍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0)
박수수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08)
박주호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1)
이수호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09)
정성원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0)
정민욱	동문(지능기계공학과 '11)
최한진	동문(기전공학과 '11)
김성현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0)
김순우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0)
김철희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09)
김태균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0)

50만원 미만

이강준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1)
이민수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07)
정봉근	동문(기계시스템공학과 '10)
윤봉길	직원(평생교육원)
이영순	교원(전자공학부)
최영규	직원(공동실험실습관)
김도형	동문(환경공학전공 '98)
김준범	구미시민
김충희	구미시민
김태원	구미시민
박기식	구미시민
박명운	구미시민
박준서	동문(소프트웨어공학전공 '03)
신경식	전 직원
심석광	구미시민
안상훈	동문(기전공학과 '09)
양병삼	학부모(전자공학부 '12 양정호)
엄재식	구미시민
윤승욱	구미시민
윤중희	구미시민
이미랑	구미시민
이승훈	구미시민
이이누마카에	구미시민
이정욱	구미시민
이정주	구미시민
이준엽	구미시민
정연우	구미시민
정재환	구미시민
정재훈	직원(기획협력처)
정지원	동문(응용화학부 '09)
지청언	구미시민
황기선	구미시민
권미리	동문(전자공학부 '10)
김명	동문(산업경영학과 '08)
나윤미	직원(교무처)
배경근	동문(신소재공학부 '08)
서홍진	직원(정보전산원)
한희중	직원(사무국)
배호균	동문(소프트웨어공학전공 '03)
안태욱	동문(컴퓨터공학과 '94)
진중영	동문(컴퓨터공학과 '93)
채영은	동문(컴퓨터공학과 '13)
최현주	학부모(메디컬IT융합공학과 '12윤지호)
황성호	동문(기계공학과 '08)
여동규	동문(컴퓨터공학과 '91)